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봉황의 안목, 송사리의 물자기

말이 난 김에, '불교와 주자학'을 본격 짚어나가려 했는데, 가던 길이 있어 우선 접습니다. 저번에 원효 스님의 <진역 화엄 경소>를 두 번째 단락까지 살피다가, 영동한 데로 뒤돌았지요. 오늘은 그 자리를 이어 세 번째 단락을 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원효 '진역 화엄경소'의 세 번째 단락 (3) 그렇지만 저 문(彼門)에 기대 이 일(此事)을 보게 되면, 하루에 세 번 문을 나서는 것 같고, 열 사람이 방안에 앉은 듯 텅 빈 세계이니, 무엇 기특한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수미산을 겨자씨에 넣는 일이 쓸쓸 들을 큰 창고에 들이는 듯하고, 방 안에 여러 사람 들어차서 것이 넓은 우주만 만물을 포용하듯 힘들지 않고 무난하다. 어디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는 봉황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악의 낮음을 바라봄과 같고, 하백이 흰바다에 이르러 시나 황하가 좁았음을 겸연쩍어 하는 것과 같으니, 배우는 자는 이 경전의 너른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약하였음을 알리라."

의지해서 크고 있고, 송사리처럼 작은 물고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편안한 법이니, 천근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여 내버릴 수 없다."

저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법계는 시간을 적용할 수 없고, 공간도 특정화할 수 없는 세계이다. 거기서는 움직임도 고요도 없다. 먼저 하나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지만, 또 태허로도 다 감싸 안을 수 없는 규모이다. 법계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고, 공간이 없으므로 나와 남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불가사의한 곳을 집착할 수 있겠느냐."

이 불교적 유토피아 앞에서 우리는 그만 까마득해집니다. 어디 머리 들이밀고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화엄은 우리가 전혀 꿈꿀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법계가 기실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살피는 세 번째 단락은 그 역설을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문에 기대 이 일을 보게 되면", 즉 법계(法界)와 연관하여 이 사비를 불자시면, 이 불가사의한 법계는 엄연히 공간과 시간의

일상적 질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할까요. 어쩌서 우리의 일상적 세계가 무장무해(無障無礙), 즉 아무런 장애도 혼란도 교정도 타파도 없이, 곧 불가사의한 법계와 동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화엄의 화두를 타파해야 일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화엄, 부수도 다시 세우는 세상 그 소식을 무던 붓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가치 지도는 실상(實相)이 아니었다는 것. 그 타파(破)를 지금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벗어나면, 온 세상은 있는 그대로 평화롭습니다. 시간과 공간, 움직임과 고요함, 좋고 싫음에, 나고 죽음이 나, 또 너니 나니, 그리고 하나와 여럿의 재구분들이야, 우리 각자의 뿌리 깊은 욕망의 의식 무의식적 혼저들이고 자식들입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풀어내야 화엄의 자리, 법계의 실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는 그러나 법들의 질서, 즉 연기법(緣起法) 위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강같은 것입니다. 거기 아무런 무질서나 혼돈이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개판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그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봉황, 높은 바람을 건디는 안목 화엄의 경지는 세상을, 운명을 전복 수급

화엄은 사물을 절대적 무차별의 경지에 서 바라보고 가르칩니다. 이 경지는 지극히 높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원효는 이를 '봉황이 구름을 타고 올라 나트막한 산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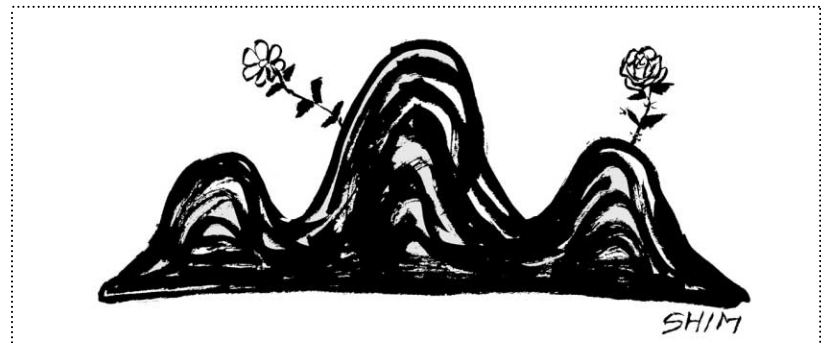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배우는 자는 이 경전의 너른 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약하였음을 알리라." 그 동안은 어찌했습니까. 불교는 소송에 서부터, 사성제니 팔정도니 하여, 나 자신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저런 이론도 세우고, 수련의 지침들도 만들어 사람들을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화엄은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글썽, 좀 짜잘하고 좀스럽다고 훑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원효의 다음 말입니다. 화엄의 원만(圓滿) 頌讚만이 아니라, 팔만의 크고 작은 가르침과 수행법들이 다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개 짧은 작은 새는 산림에 의지해서 크고 있고, 송사리처럼 작은 물고기는 여울에 살면서도 본성에 편안한 법이니, 천근한 방편의 가르침이라 하여 내버릴 수 없다."

나는 이 말에 목이 메입니다. 갖 곳은 멀고 높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걸음부터 천천히 이 험한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흡사, 아주 가까이 보이는 산이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길을 힘겹게 걸어야 하는 산행과 같은 것입니다. 부디, 낮고 짜잘한 가르침이라고 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진짜는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가깝게 보이는 산, 그러나 길은 험하다



부순 다음에는 세워야(立)겠지요. 그 주관적 가치의식이 깨어지고 깨어져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시냇물은 흘러가고, 장부에 차소리는 들리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또 들으며, 화를 내고 웃으며, 또 험상도 하고 험박도 하며, 사기도 치고 구걸도 하는 이 인간만사의 세상인들이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틀리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적대적이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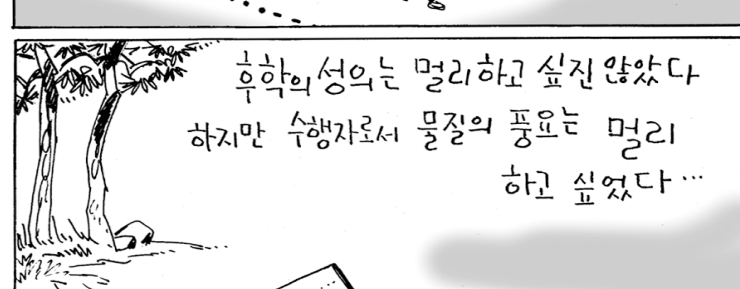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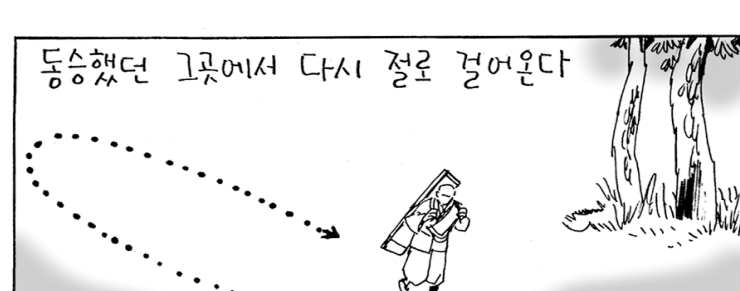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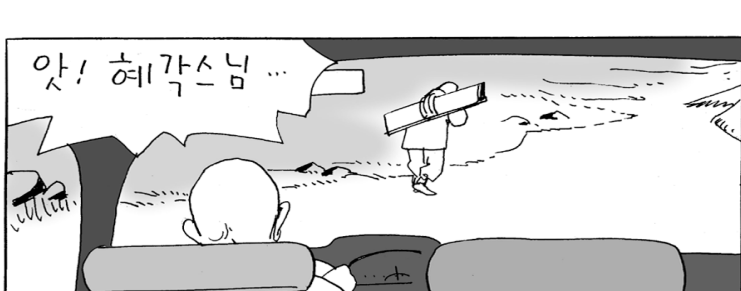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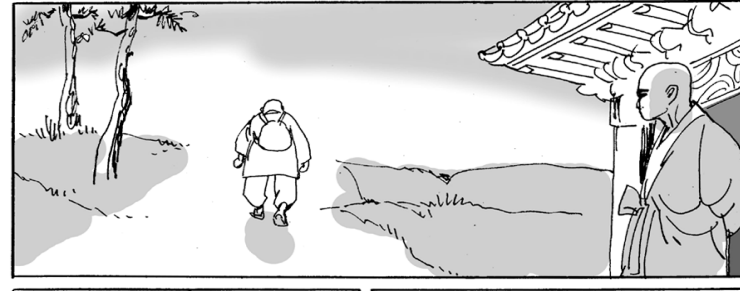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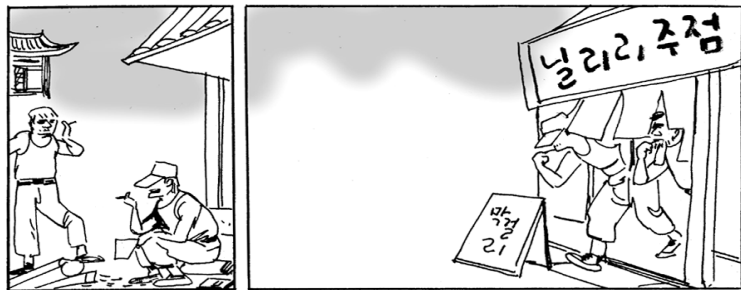
할 수 있는 용기와 통찰력을 갖춘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열려있는 안목입니다. 당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좁은 욕망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혹 있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경지는 높은 만큼, 더 강한 바람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주장사파라...

70 혜각 스님의 병풍



조태호



혜각(慧覺; 1905~1998): 황해도 신촌군 태생. 회령 스님을 은사로 모신,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였으며, 청정한 삶과 지계(持戒)로 존경 받음.

네티즌 교리문답

십우도(十牛圖)가 무엇입니까?

불교 경전, 특히 <화엄경>에서는 소가 많이 나옵니다. 왜 경전에 소가 등장하는지요? 또 십우도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공금이)

답1: 불교에서는 보통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소를 찾는 것에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십우도 역시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것을 동자(童子)나 스님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입문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를 10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십우도에서 소는 우리의 본래 면목을 의미합니다. 중국 송나라 곡암(廓庵)스님의 '십우도(十牛圖)'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소석)

답2: 십우도의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자승이 자신의 본성인 소를 찾아 나서서 십우(尋牛)입니다. 두 번째 견적(見跡)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고 세 번째 견우(見牛)는 소를 발견한 것으로 깨달음이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득우(得牛)는 동자승이 소를 잡아 고삐를 거는 모습으로 수행자가 견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목우(牧)는 소에 코뚜레를 꿰어 길들이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삼독의 때를 지우는 단계로 소가 검은색에서 차츰 흰색으로 변한다.

여섯 번째 기우가(騎牛歸家)는 흰 소에 올라탄 동자승이 피리를 불며 깨달음의 세계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망우존인(忘牛存人)에서는 소는 잊고 동자승만 남아 있습니다. 소는 단지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여덟 번째 인우구방(人牛俱忘)은 사람도 소도 모두 공(空)임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텅 빈 원상(圓相)만 그려져 있습니다. 근원(근)에 들어간다는 뜻을 가진 아홉 번째 반본환원(返本還源)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 번째 입전수수(入廛垂手)는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중생제도를 위해 속세로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석소)

답3: 사찰을 찾았을 때 법당 외벽에 가장 많이 그려지는 벽화가 십우도입니다. 일찍부터 선가에서는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성품을 소에 비유하여 마음 뒤는 일을 소 찾는(尋牛) 일로 비유해왔습니다. 소의 상징은 '참 생명', '참 나'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소를 찾는 일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수행자를 이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소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좋은 소)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0x10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상식퍼즐

- 1. 소불 모양의 호수 2.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 3. 기름에 튀긴 면발에 스프를 넣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식품 4. 운동이나 자연 관찰을 겸하여 야외로 길을 떠나는 것 5.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된 사찰 6. 중생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7. 발광제(發光劑)가 들어 있는 탄환.

1.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만 핀다는 상상의 꽃 8. 일정한 금액에 얼마를 더 얹을 9. 얼굴의 수염을 깎는 일 10. 줄기차게 쏟아지는 비 11. 감중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12. 나라의 운수 13. 머리· 가슴· 배의 세 부위로 나고 가슴에는 3쌍의 다리가 붙어 있는 종의 총칭 14. 서도를 조형예술의 관점에서 이르는 말 15. 곡식을 찧거나 찳는 방아를 설치한 한국의 건물로 방앗간이라고도 함 16.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맞지 않는다는 말로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뜻.